☐ 조선일보 인터뷰 질문지

질 문 1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사천이 우주항공청의 최적지로 꼽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결정된 배경은 세계적인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천은 우주영역에 민간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잘 조성돼 있습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생산액 점유율은 2020년 기준 전국의 68%(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021 기준 통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활동에 대한 영남권 매출액은 전국의 20%(2022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과기부) 정도로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충청, 대전권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즉 KAI를 비롯해 다양한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는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 중심인 경남에서도 핵심지역입니다.

특히, 사천시는 2015년부터 우주항공과를 설치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폭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과 행정적인 노력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이끌어갈 적임지로 선택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 문 2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어떤 조직인가요?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미래 우주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민간중심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올드스페이스라 불리던 우주개발은 강대국 간 군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중심의 우주경제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페이스이고,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주는 '스페이스 엑스', '원웹', '블루오리진' 등 거대 기업들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주경제의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의 우주개발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주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우주개발의 비전을 세우고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지만, 기존 정부 조직과는 다른 혁신적인 형태로서 행정조직 혁신의 시범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는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수 제한 해제, 보수상한 해제, 연구성과 보상 등 유능한 인재 영입과 함께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혜택들이 마련됩니다.

질 문 3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우주산업은 타 산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에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업체만 3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주산업은 물론 기계, 건축, 설비 등 다양한 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산업은 융복합산업으로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우주산업으로 농업, 바이오,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경제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모든 산업영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질 문 4

사천 설립에 대한 대전, 충청권 지역과 야당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반대 이유와 논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천, 경남도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

대전지역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가깝다, 항우연이나 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시설이 대전에 모여 있다'라며 우주항공청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이끌어왔던 뛰어난 연구기관들이 소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주개발에 대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연구기관들의 주된 역할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우주 연구를 하는 것이고,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민간주도의 우주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해 나가는 협력의 관계는 맞지만, 서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릅니다.

지금까지처럼 위성개발, 발사체개발 등의 개발분야를 연구기관이 수행해서는 절대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거나 수익창출이 어려운 사업들은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4월 5일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이기 때문에 범부처 총괄 및 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대체법안 즉 반대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장관급 본부장을 임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직위가 높다고 해서 업무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권한과 역량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면 조정능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특히,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조직은 위원회 산하에 불과합니다. 규모는 축소될 것이고, 우주전담조직이 없었던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우주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지역이기주의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질 문 5

단순히 우주항공청이라는 기관을 두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사가 운영하는 존슨우주센터를 품은 휴스턴처럼 사천을 항공우주도시로 만들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교육연구 등을 활성화시킬 큰 그림이 있다면?

-경남도와 함께 경남을 그리고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해 기본적인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사천시 우주항공 인프라 완성을 위해 '우주항공클러스터 추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완수 도지사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사천을 우주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5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정책포럼'을 출범시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우주경제비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실현 방안을 담은 '경남 우주경제 비전'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물론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 조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6

최근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사천 스마트도시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우리 시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교통, 환경, 안정 등 각종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사천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시민 참여단(리빙랩)을 구성해 도시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직접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스마트도시 전문가들의 자문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현장 목소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사천시는 현재, 우주항공산업의 집적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출범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획기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동력산업의 거점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민선 8기 시정방침과 공약사항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전략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지역 변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향후 새로 유입되는 우주항공 전문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7

경남도가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남해안을 낀 사천시 역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할텐데.

-사천시는 경남도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밸리 육성사업에 맞춰 '머물고 쉬어가는 섬 관광, 어민과 상생하는 해양관광도시 사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등 각종 해양관광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역사와 문화,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와 산, 하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도 유명하지만, 세계 희귀 어류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경남 유일의 아쿠아리움 인기 또한 만만찮습니다.
편백향 가득한 자연휴양림, 고대소설 별주부전의 고향인 비토섬 캠핑장은 가족 단위 휴양지로 전혀 손색이 없고, 해양낚시공원은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 전국의 강태공 가족들의 힐링 명소입니다.
남녘 땅에서 경치가 빼어난 남일대해수욕장도 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도심 속 운치 있는 휴양지입니다.
여기에, 대관람차와 회전목마가 5월 초 상업운행에 들어가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늑도, 신도, 마도, 저도를 잇는 무지개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밸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 문 8

이웃 지자체와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을 하는 등 우호 협력은 관광분야 시너지 효과 등의 기대가 크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우리 시는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력을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6%가 인근 경상남도, 부산 등에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입니다. 특히, 우리 시를 방문 후 인근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통영시를 방문하거나 인근 지역을 방문 후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웃 지자체인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년부터 진주시와 연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포함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6개 시군으로 구성된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가 관광 책자 발간, 관광 기념품 제작 등 통합 광고·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이 연계한 광역 시티투어 '남중권 누비 GO 투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4월부터 재개했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하동세계차(茶)엑스포 등 인근 지역의 대형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홍보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질 문 9

사천 역시 인구 감소화 문제를 겪고 있다. 사천시 차원의 인구 대책이 있다면?

인구감소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미 합계출산이 1명이 되지 않는 저출산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체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시도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10만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장난감은행 운영,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학원비 지원과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상담, 맞춤형 교육, 청년주택 제공, 기숙사비, 월세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탈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면 지역활력과 함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